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 "2024년 신안산선 성공 개통 위해 모든 기관과 협력" 9일 착공식서 사업완공 의지...경기 서남부 교통편의 위한 안전개통 당부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9일(월)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식에 참석했다.
 - 안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,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, 조정식 의원 등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와 사업 관계자, 경기도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.
- 김현미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“16년 이상을 기다려왔던 신안산선 사업이 마침내 착공하게 되었으며,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협력하여 ‘24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 - 이어, “광역급행철도인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이곳 안산에서 여의도역까지는 100분 이상에서 20분대로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이 기대된다.”고 강조했다.
 - 또한, “서울도심과 수도권 서남부를 연결하여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끄는 광역철도망으로서, GTX 등과 함께 새로운 철도연계수송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철도교통편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”한다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우선협상 대상자(넥스트레인(주))를 선정(‘18. 2.)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(‘18. 12.), 실시계획 승인(‘19.8.22)을 거쳐 ‘19. 9월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.
 -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‘24년 개통 예정이다.

2019. 9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